



제주도서관 '별사단 4기'
어린이 사서학교 운영

제주도서관이 2026년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 사서학교 '별사단 4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별이 내리는 숲 4층 박종실홀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예비 초등 학교 4~6학년 어린이 12명이다.

프로그램은 사서 직업 이해, 자료 배가 및 책 보수 체험, 청구기 호(KDC) 이해와 배열 실습, 주제별 주천 도서 선정 및 책 소개 글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선정한 도서를 3월 한 달간 1층 전면에서 '별별 책 전시' 코너에 전시할 예정이며, 작성한 책 소개 글은 도서관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전자 우편(jejilib@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서관 독서문화부(전화 064-717-64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겨울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공공도서관 누리집서 신청

'2026년 생각을 넓히는 겨울독서 교실'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수풀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미영 독서지도사를 강사로 조정해 초등학교 예비 4~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고 독서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학생들은 도서 '어디서나 필요한 수학의 원리'를 함께 읽으며 실생활 속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를 탐색한다. 특히 수학자와 직접 인터뷰를 나누는 형식의 '상상 놀이'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가짜 뉴스, 행복 등을 주제로 한 독서·토론 활동도 진행된다.

참가 모집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김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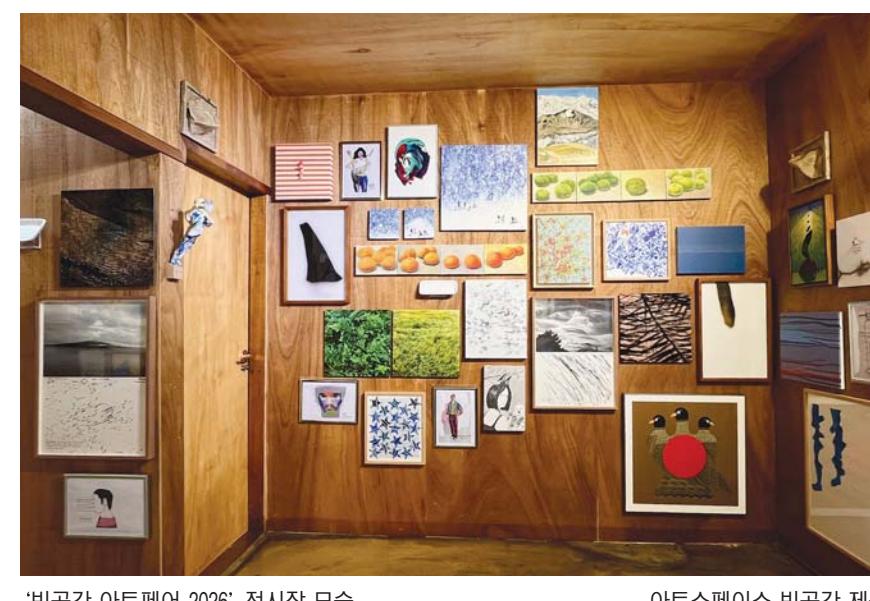
무근성 옆 전시장에 '작은 미술시장'

네 번째 빈공간 아트페어
2023년부터 새해에 첫 문
이달 15일부터 45일간
작가 37인 150점 전시
"예술가들의 길 동행을"

제주시 원도심 무근성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이 올해도 '작은 미술 시장'을 연다. '오크(OHHO)'라는 이름을 딴 '빈공간 아트페어 2026' 다.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은 2023년부터 아트페어로 매년 새해의 첫 문을 열어왔다. 올해 네 번째인 아트페어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20대에서 70대를 아우르는 시각예술가 37명이 함께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김길, 정정엽, 김태현, 김월식, 박해빈을 비롯한 제주와 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양동규, 이애리, 박길주, 박정근, 여다함, 김기대, 전선영, 안수연, 김현준, 조향미, 김지훈, 한용환, 현초인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회화, 판화, 드로잉, 오브제 설치, 사진, 조각 등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인다.



빈공간 아트페어 2026 전시장 모습.

제주 원도심의 매력에 이끌려 8년 전 이주해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이상홍 대표는 "동네의 작은 전시장에서 생애 첫 작품을 구입하는 경험을 빈공간 아트페어에서 갖는 도민이 매년 늘어간다"며 "제주와 육지의 시각예술가들이 만든 다양하고 유쾌한 작품들로 병오년을 맞이하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에너지와 희망을 북돋у고 한다. 밝은 빛을 향해,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예술가들과 그 길을 오래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트페어 방문객들이 작품에 집

중해 관람하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작품과 작가 정보를 안내하는 작품 캡션을 달지 않고 작품만 보여주는 설치 방식으로 운영한다. 작품 판매가는 10만원대에서 100만원 내외다.

아트페어는 사전 예약으로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아트페어는 정주 '아트(APT) 빈공간', 서귀포 '키위새 스테이션'과 협업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전화 0507-1347-8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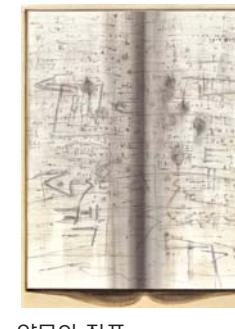
거칠고 날카롭게... 내면과 외부 충돌의 흔적

양목 '자아-존재' 전

양목 작가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대섬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자아-존재(Self-Existence) 2026'을 열었다.

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흔적들을 다룬 회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존재', '실존', '저항', '육명' 등의 키워드를 제시한다. '펼쳐진 책' 혹은 '기록물'을 연상시키는 화면 구성을 통해 기록된 삶의 형상인 '존재'를 표현한다.



또 화면 곳곳에서 보여지는 마티에르, 거친 극힘, 탄흔 자국, 무수히 겹쳐진 선들은 매끄러운 삶이 아닌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삶'의 고통과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는 '실존'을 의미한다.

계간 '제주작가' 겨울호

제주작가회는
계간 '제주작가'
2025년 겨울호
(91호)를 냈다.



이번 호의 특집에는 '제주작가' '톺아보기' 첫 번째 편이 실렸다. 김진철 편집주간이 지난 십수 년간 '제주작가'에 실린 시와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의식과 미학적 지향을 분석한다. 또 '물방울의 화가' 김창열의 예술 여성과 제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김동윤 평론가의 글도 실었다. '2025 제주작가 신인상' 수상작과 각 부문 심사평을 함께 담았다.

박소정기자

축 임 제주시 이도2동 가령마을 최대 노인회장



김 수 열

(가령마을회장)
(제주시파크골프협회 공정위원회 위원)

김수열 회장님께서는 평소 남다른 공경심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오면서 마을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을 조성, 개원식과 더불어 최대 노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격려드리며 항상 경로효친의 일념으로 부단한 정진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 응원하겠습니다.

국민가수 김수희 가족 일동

진 축 금 대한민국 해군 소장



고승범 소장

(조천읍 신촌 출신·대기고 5회·해사 49기)

대한민국 해군 소장으로 진급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 지인 문상옥·오운자

수 축 상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1차산업 부문)



고봉주

(제주시농업협동조합장)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1차산업 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7기 주민자치위원장 동우회
회장 고경택 외 회원 일동

수 축 상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고경석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달1리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회관 <483>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제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놀멘: "야으덜아,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쓴 제주어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 엔 흐 디서 '나이를 촘암수다'에 대호 시 이악을 흐여보겨."

- 나이를 촘암수다 -

나이가 어디 가신지 몰르肯 맙서
손으로 얼굴이나 막으명 흘읍서

볼 거 못 볼 거 봄 나이는
이녁 눈 소곱에 츄곡츠곡 쌩연 싯고양
흘 말 못 흘 말
먹을 거 안 먹을 거
아맹이나 흐여댕기단 나이는
물론 책 셋바닥에 꼽젓지에

흘 말 못 흘 것
가당오당 무신 거를 췄여 잡앗단
탐욕시련 나이는 손신디 들어봄서
갈 디 안 갈 디
정체웃이 휘갈아탱기단 지친 나이는
이녁신디 짖현 드러누원 시수게

나이가 어디 가신지 몰르肯 맙서
이녁 몸에 문 꼽전 뇨듬서 그짓끼리 맙서

<계속>

제주어 풀이

*몰르肯 맙서 : 모른다고 하지 말아요. *흐읍서 : 말해요. *이녁 : 자기
*소곱에 츄곡츠곡 : 안에 차곡차곡 *쌩연 싯고양 : 쌓여 있구요
*아맹(아미영) : <어찌> 아무리. 아무렇게 *흐여댕기단 : 하여 다니다가
*꼽젓지에 : 감추었지요. *무신 : 무슨, 무엇을
*췌여잡앗단 : 쥐어잡았다가 *들어봄서 : 물어(여주어)봐요
*정체웃다 : <움직> '정체'는 주로 '없다'는 말과 흐옹하여 쓰는데,
행동이 차분하지 못하고 주체가 떳떳하지 못하고
일정하지 못하는 뜻 *휘갈아탱기단 :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녁신디 : 자기에게 *짖다(불르다) : <움직>발로 뺏다.
*드러누원 시수게 : 누워 있어요 *문 꼽전 뇨듬서 : 다 감추어 놓고서
*그짓끼리 맙서 : 거짓말 말아요